

시미즈다니 제련소 터

현재는 푸르른 언덕 중턱에 고요히 자리한 돌과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지만, 이곳 시미즈다니 제련소 터에는 19 세기 후반 은 생산을 재개하려다 실패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1886 년에 오사카의 후지타구미라는 기업이 이와미 은광의 채굴권을 획득했을 때 이 광산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였습니다. 그러나 후지타구미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기존의 갱도를 확장하고 대량의 광석을 캐내기 위해 다이내마이트를 사용하는 등 최첨단 채굴 설비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. 근대화를 이루려는 이러한 노력 끝에 1895 년 드디어 시미즈다니 지구에 새로운 제련소가 건설되었습니다. 이 제련소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까운 갱도에서 채굴한 대량의 광석을 처리했습니다.

그러나 350 여 년이나 채굴이 계속되었던 이와미 은광의 은이 이미 고갈된 후였을 뿐만 아니라, 광석의 질 또한 예상보다 조악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은을 정련하는데 사용된 기술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 시미즈다니 제련소는 결국 조업을 시작한 지 불과 1 년 반만에 폐쇄되었습니다. 후지타구미는 당시 일본제국의 일부였던 대만의 지우펀 등 회사가 관할하던 다른 광산으로 정련 설비를 이전하여 손실을 줄이려 애썼습니다. 시미즈다니 제련소 터는 변전소로 바뀌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물의 기초 부분만이 과거 이 시설의 당당하고 인상적인 규모를 암시할 뿐입니다.